

비행청소년의 전과 유무에 따른 재범 특성 및 위험 요인 비교

박 지 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최근 들어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잔인함을 훨씬 뛰어 넘을 정도로 폭력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는 등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전과가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재범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 5개 경찰서에 입건된 총 201명의 만 19세 이하 소년범들의 비행축발요인 조사서, 사건 및 면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관련 특성 및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범죄의 재범과 관련된 가정, 학교 및 개인적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의 구조나 기능적 역할에 있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가정불화나 냉담함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드러났는데,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보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교에 장기/무단결석을 일삼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의 경로나 정학 경험 또한 더 많으며, 상급학교 진학 예정은 없고,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비행 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에 있어서도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상습적인 가출 경험이 있고, 가출하여 어울릴 친구들이 있으며, 실제로 가출하여 집단으로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 또한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이전 지구대나 경찰서 입건 전력,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경력, 보호관찰 위반경력, 대인피해 전력 모두에 있어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장물처리 등의 비행 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최초 비행연령이 만 10세 이하인 경우가 더 많으며, 비행 전력의 점진적 심각성 또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더불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본드나 가스 등을 흡입해 본 경험이 더 많고, 준법 의식이나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비행청소년, 재범 위험성, 비행축발요인 조사서, 가족 구조, 학교 생활

[†] 교신저자 :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Tel : 02-2077-7832, E-mail : jsirispark@hotmail.com

2014년 5월, 김해에서 고등학교 1학년 윤모 양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후 시신을 훼손하고 야산에 암매장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혹했던 본 사건에서, 더욱 충격적인 점은 피의자들 가운데 또래 여중생 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잔인함을 훨씬 뛰어 넘을 정도로 폭력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는 등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법행위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행위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소년범죄는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약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2%에 불과하던 2004년에 비해 약 150%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대검찰청, 2013). 소년범죄의 유형을 보면, 절도 등 재산범죄가 5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폭행 등 폭력범죄가 37.3%, 살인 등 강력범죄가 3.5%를 차지하고 있다(대검찰청, 2013).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범죄 발생에서 강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모두에 걸쳐 14-15세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저연령화 경향이 나타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김지선, 2007; 이동원, 2003).

특히 주목할 점은 2004년에는 소년범 가운데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이 64.3%를 차지한 반면, 2012년에는 해당 비율이 52.6%로 감소하고, 오히려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이 2004년 7.2%에서 2012년 12.2%로 상승한 점이다(대검찰청, 2013).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전체 재

범자 가운데 동종의 범죄로 1년 이내에 재범하는 비율이 총 39.4%를 차지하고, 이중 재범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범하는 비율이 총 37.9%를 차지하는 등 재범 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성인과 비교했을 때 보호관찰 대상자인 청소년의 경우 재범율이 성인보다 약 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진규, 2011).

이처럼 소년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소년범죄자 가운데 재범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재범 기간도 짧다는 점은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의 재범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상당수가 소년원에 있거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김헌수·김현실, 2001; 양종국·김충기, 2002; 이동원, 2003; 이희정·이성철, 2005; 조운오, 2012; 한기혜·박영신, 2004; 황진규, 2011). 즉, 교정 단계의 범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제원·이규호·이민희, 2010; 이수정, 2007; 이수정·조은경, 2005). 특히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황진규, 2011).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의 대응 보다는 효율적 대처로 장기적인 범죄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비행청소년의 범행 및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분

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고제원 외, 2010; 이남희·이봉건, 2009).

비행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비행청소년의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청소년의 가족과 학교, 교우 관계, 비행 전력 및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비행청소년의 가족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등이 초래하는 가족의 역기능은 청소년 비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Dembo, Turner, Sue, Schmeidler, Borden, & Manning, 1995; Marquis, 1992). 국내에서도 비행청소년 중 재범자들이 편부모 아래 양육되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가 초범자에 비해 많고, 가족의 친밀도가 훨씬 낮으며, 방임적인 양육 태도의 비율이 높고, 학대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2007; 한기혜·박영신, 2004; 황진규, 2011). 또한 부모-자녀 등 가족 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가정만족도 혹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 가족 내 신체적 학대경험도 재범과 관련이 있었다(김현수·김현실, 2001; 서동혁 등, 2001; 양종국·김충기, 2002; 한기혜·박영신, 2004).

한편,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있어, 재범자들의 중퇴경험이 비재범자에 비해 많고 결석을 더 많이 하며, 학교 부적응 정도가 높고 학업 성취도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종국·김충기, 2002; 이수정, 2007; 이희정·이성철, 2005; 황진규, 2011). 더불어, 왕따 피해 등 학교폭력 경험은 비행청소년의 일탈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조운오, 2012).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 중퇴는 정서적 불안이나 소외감, 사회적 낙인의 효과를 유발

하고, 중퇴 후 비행청소년들과의 교류 기회가 더욱 증가하면서 재범에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Frick 외, 2003). 실제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있어 퇴학 처분을 받은 친구 수는 재범자들이 비재범자들보다 훨씬 많으며, 소년원 및 보호관찰 경력이 있는 친구의 수 역시 재범자들이 비재범자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의철·박영신·탁수연, 2010).

다음으로, 가출과 관련해서는 비행청소년 가운데 재범자가 초범자보다 훨씬 더 가출 경험이 많았으며(노일석, 2009; 이희정·이성철, 2005), 소년원 출원 후 가출횟수가 비행행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운오, 2012).

한편, 비행 관련 요인 가운데 초범 연령은 재범 위험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수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다(김현수·김현실, 2001; 노일석, 2009; 정선주 외, 1999). 즉, 초범 연령이 낮을수록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범죄가 만성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비행청소년 중 재범자들의 초범연령이 비재범자에 비해 낮고, 총 범죄 전력은 훨씬 많으며, 폭력 전과가 더 많고, 보호처분 전력 및 보호관찰 경력 또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일석, 2009; 서동혁 등, 2001; 이수정, 2007; 이희정·이성철, 2005; 황진규, 2011).

이외에도 청소년범죄의 재범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청소년 중 재범자들이 비재범자들에 비해 음주빈도가 높고, 약물 경험이 더 많으며, 범행에 대한 책임의식 및 도덕 발달의 정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일석, 2009; 서동혁 등, 2001; 양종국·김충기, 2002; 이수정, 2007; 황진규, 2011).

경찰 단계에서의 재범 위험성 조사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이수정·조은경, 2005)는 경찰서에 입건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심리사가 면담 및 심리검사(PAI: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orey, 1991)를 통하여 가족, 학교, 친구, 비행, 그리고 개인적 요인 등과 관련된 재비행 위험성을 다각도로 판단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그 내용 및 결과는 향후 비행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적 판단 및 선도 방향 제시 과정에 고려되고 있다. 그 동안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피험자 면담 없이 소년원 등 기관의 기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이동원, 2003). 이에 반해 비행촉발요인조사서는 소년법에 대한 범죄심리사의 심층 면담 내용이 조사서에 기록됨으로써 보다 풍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소년원 등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선행 연구의 피험자들에 비해, 경찰서 입건 단계의 비행청소년들은 비행성의 분포가 훨씬 폭넓고 다양하다(이수정·조은경, 2005). 특히, 소년법에 대한 가장 최초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찰 단계에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비행 청소년의 재범 위험성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 전략 수립에 더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이수정·조은경, 2005).

2003년 10월 처음 일선 경찰서에서 소년법 조사시 범죄심리사가 투입된 이래로, 2014년 현재 서울의 경우 총 31개 경찰서에서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층 면담을 통해 이전의 비행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미흡했던 소년법들의 의식이나 태도(피해자 입장에 대한 이해, 범행에 대한 책임의식,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심리학적 관점에서 비행청소년의 범죄 원인 이해 및 재범 위험 요인 분석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이동원, 2003). 이를 통해 소년법 개개인이 취약한 재범 위험 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응으로, 차별화된 개입 및 전환(diversion) 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행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용되는 비행촉발요인조사서를 중심으로, 우선 비행청소년의 재범과 관련된 가정, 학교 및 개인적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관련 특성 및 위험 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찰서에 입건된 19세 미만 소년법들의 비행촉발요인 조사서, 사건 및 면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들의 특성 및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학교, 친구, 그리고 개인적 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5월부터 2014년 9월에 이르기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 총 5개 경찰서에서, 범법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심리사가 기록한 비행촉

발요인 조사서 총 201건을 분석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취약한 재범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심리검사 PAI 결과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201건 가운데 남자 비행청소년이 168명(83.6%), 여자 비행청소년이 33명(16.4%)을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연령은 최소 11세에서 최고 19세까지 평균 15.2세(표준편차 = 1.4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세가 49명(2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5세가 46명(23.1%), 14세가 44명(22.1%), 17세가 30명(15.1%), 13세가 19명(9.5%) 등의 순으로 많았다(그림 1).

총 201명 가운데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이 29명으로 14.4%를 차지하였고,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이 172명으로 85.6%로 나타났다. 재범을 저지른 비행청소년들의 전과 수의 평균은 1.55회(표준편차 = 0.98)로, 1회가 20명(1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회로 4명(2.0%), 3회가 3명(1.5%), 그리고 4회가 2명(1.0%)의 순이었다. 전과 가운데 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가 17명(5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행이 11명(37.9%), 도로교통법 위반이 4명(13.8%), 기타가 13명(44.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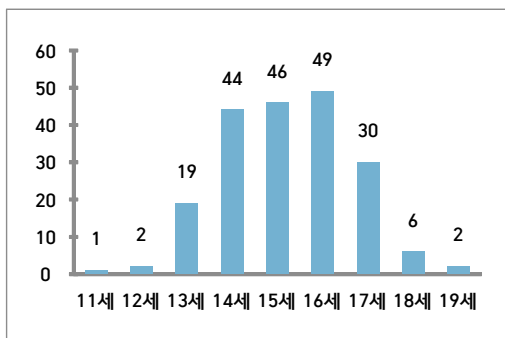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자들의 나이 분포(단위: 명)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 가운데 남자가 26명(89.7%), 여자가 3명(10.3%)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최소 13세에서 최고 19세까지 평균 15.3세(표준 편차 = 1.2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세가 11명(37.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4세가 9명(31.0%), 15세가 5명(17.2%), 17세가 2명(6.9%), 13세와 19세가 각각 1명(3.4%)의 순이었다. 연령에 있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과 없는 비행청소년들(평균 15.2세, 표준 편차 = 1.45) 간에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 = .245, df = 197, ns$).

연구 절차

총 201건의 소년범들의 비행촉발요인 조사서, 사건 및 면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 29명의 가정, 학교 및 개인적 특성들을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과 비교하였다.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에는 가족의 구조, 가족의 기능적 역할,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 전력 및 환경, 개인적 위험 요인 등 총 6가지의 영역에서 청소년의 재비행 위험성과 관련된 총 45개의 위험요인들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이수정·조은경, 2005).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과 관련된 요인에는 결손이나 부모의 이혼 여부가 반영된 가족 구조와 함께, 가정불화나 폭력 및 학대 여부와 관련된 가족 기능이 포함되었다(표 1 참조). 다음으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에는 장기결석 여부나 정학 경험, 교우관계 등이 포함되었고, 가출 경험 요인에는 그 상습성 및 집단 생활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표 2 참조). 더불어, 비행 전력과 관련된 요인에는 경찰서 입건 혹은 유죄 판결 전력과 함께, 범행의 계획성이나 비행의

점진적 심각성, 초범 연령 등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표 3 참조). 마지막으로, 개인적 특성 요인에는 상습적 음주나 약물 남용, 준범 의식이나 피해자 입장에 대한 이해 등을 비롯한 범죄에 대한 태도, 정서 상태나 충동성 등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들이 폭넓게 포함되었다(표 4 참조).

이와 같이 총 45개의 위험 요인에 대한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의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보고되었다(이수정·조은경, 2005). 본 연구에서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의 총 45개의 위험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86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하여 비행청소년의 재범과 관련된 제반 특성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밝혀 궁극적으로 청소년범죄의 예방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결 과

가족 구조 및 기능적 역할

우선, 비행청소년의 전과 여부에 따른 가족의 구조 및 기능에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1 참조).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몇몇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불화나 냉담함의 정도 또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가족의 구조 및 기능적 역할

가족의 구조	재범	초범	χ^2
가정결손 (친부 혹은 친모 사망)	2 (6.9%)	5 (2.9%)	1.18
부모 이혼, 별거, 혹은 가출	14 (48.3%)	56 (32.6%)	2.70
독거	1 (3.4%)	2 (1.2%)	0.88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 없음	3 (10.3%)	2 (1.2%)	8.63**
가족의 기능적 역할	재범	초범	χ^2
가정 불화나 냉담 심함	7 (24.1%)	15 (8.7%)	6.05*
가족 간 신체 및 언어적 폭력 심함	6 (20.7%)	23 (13.4%)	1.08
가족 간 심리적 학대	6 (20.7%)	24 (14.0%)	0.89
보호자의 애착 및 관심정도 비정상	7 (24.1%)	28 (16.3%)	1.07
가족 구성원 중 전과자 있음	2 (6.9%)	3 (1.7%)	2.72

* $p < .05$, ** $p < .01$

학교생활 및 가출 경험

이번에는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 간에 학교생활이나 가출과 관련된 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다양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중퇴하는 등 학력이 낮은 경우가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많게 나타났다. 또한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 장기적

표 2. 학교생활 및 가출 경험

학교생활	재범	초범	χ^2
학력(중졸이하 혹은 고퇴)	11 (37.9%)	25 (14.5%)	9.24***
장기결석 혹은 짧은 무단결석	21 (72.4%)	47 (27.3%)	22.54****
학교생활적응에 문제(양파 피해 혹은 가해경험)	2 (6.9%)	24 (14.0%)	1.09
학교에서의 경고나 정학 경험	18 (62.1%)	55 (32.0%)	9.72***
상급학교 진학예정 없음	11 (37.9%)	31 (18.0%)	5.95*
교우관계: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친구 있음	21 (72.4%)	75 (43.6%)	8.26**
가출 경험	재범	초범	χ^2
가출경험 상습적	13 (44.8%)	32 (18.6%)	9.82***
가출하여 어울릴 친구들 있음	20 (69.0%)	55 (32.0%)	14.52****
가출하여 집단으로 생활해 본 경험	10 (34.5%)	26 (15.1%)	6.33*

* p < .05, ** p < .01, *** p < .001

으로 결석하거나 무단결석을 일삼는 경우가 약 4분의 3에 달하는 반면,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약 4분의 1 정도로 나타나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또한 학교에서의 경고나 정학 경험, 교우 관계에 있어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상급학교 진학 예정이 없는 경우가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경험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모든 관련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약 반 정도가 상습적인 가출 경험이 있는 반면,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약 5분의 1 정도로 나타나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또한 가출하여 어울릴 친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출하여 집단으로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전력 및 환경

이번에는 비행 전력이나 환경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이전 지구대나 경찰서 입건 전력,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경력, 보호관찰 위반경력, 대인 피해 전력 모두에 있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과 없는 비행청소년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장물처리 등의 비행 수법을 알거나 최초 비행연령이 만 10세 이하인 경우가 더 많았고, 비행 전력의 집진적 심각성 또한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이번에는 두 비행청소년 집단 간 개인적인 특성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우선,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본드나 가스를 흡입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피해자나 범행에 대해 이들이 가지

표 3. 비행 전력 및 환경

항목	재범	초범	χ^2
본 비행 전 지구대 혹은 경찰서입건	29 (100.0%)	54 (31.4%)	48.18***
유죄 판결 전력	20 (69.0%)	0 (0%)	131.7***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경력	4 (13.8%)	0 (0.0%)	24.21***
보호관찰 위반경력	10 (34.5%)	0 (0.0%)	62.42***
대인피해전력 (본범제외): 폭력, 성범죄, 강도, 살인 등	12 (41.4%)	30 (17.4%)	8.60**
본 비행내용: 대인피해	5 (17.2%)	56 (32.6%)	2.75
본 범 사전모의 혹은 계획	6 (20.7%)	33 (19.2%)	0.04
비행수법 (장물처리 등)	13 (44.8%)	39 (22.7%)	6.35*
비행전력의 점진적 심각성	19 (65.5%)	35 (20.3%)	25.77***
최초 비행연령이 만 10세 이하	2 (6.9%)	1 (0.6%)	6.73**

* p < .05, ** p < .01, *** p < .001

고 있는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준범 의식이 없고,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개인적 특성

항목	재범	초범	χ^2
술을 자주 마심	11 (37.9%)	40 (23.3%)	2.82
본드나 가스 등을 해본 적 있음	5 (17.2%)	9 (5.2%)	5.52*
술이나 약물에 대한 중독, 남용	6 (20.7%)	25 (14.5%)	0.72
인터넷 게임/ 음란사이트 중독	3 (10.3%)	7 (4.1%)	2.07
성경험으로 인한 문제	0 (0.0%)	5 (2.9%)	0.87
성매매 경험	1 (3.4%)	2 (1.2%)	0.88
본범에 대한 책임의식 없음	17 (58.6%)	94 (54.7%)	0.16
피해자의 입장 이해 못함	17 (58.6%)	97 (56.4%)	0.05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 없음	13 (44.8%)	77 (44.8%)	0.00
준범의식 없음	20 (69.0%)	43 (25.0%)	22.29***
인생목표의 현실성 및 노력 없음	18 (62.1%)	76 (44.2%)	3.19
인지능력손상	1 (3.4%)	5 (2.9%)	0.03
정서상태 불안정	5 (17.2%)	14 (8.1%)	2.40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능력 없음	20 (69.0%)	73 (42.4%)	7.02**
충동적 행위 탐닉	19 (65.5%)	81 (47.1%)	3.37
분노 폭발 경험	14 (48.3%)	55 (32.0%)	2.92
상담 및 조사에 입하는 태도 불량	3 (10.3%)	22 (12.8%)	0.14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재비행 위험성

비행촉발 요인	전과 여부	M	SD	t
가족구조	없음	0.38	0.54	-2.536*
	있음	0.69	0.93	
가족기능	없음	0.54	1.03	-1.978*
	있음	0.97	1.29	
학교생활	없음	1.49	1.45	-4.905***
	있음	2.90	1.26	
가출경험	없음	0.66	1.05	-3.877***
	있음	1.48	1.12	
비행전력	없음	1.44	1.36	-9.075***
	있음	4.14	2.07	
개인적 요인	없음	4.22	2.76	-3.174**
	있음	5.97	2.67	
총점	없음	8.73	5.79	-6.265***
	있음	16.14	6.46	

* p < .05, ** p < .01, *** p < .001

재비행 위험성

이상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에서 청소년의 재비행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요인들을 평가하는 6가지의 영역 각각의 총점에서 두 비행청소년 집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5 참조). 그 결과,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가족구조, 가족기능,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전력, 개인적 요인, 그리고 총점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총점을 바탕으로 재비행 위험성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재비행 위험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

(총점 21점 이상)가 24.1%, 약간 높은 경우(총점 11-20점)가 55.2%, 낮은 경우(10점 이하)가 20.7%로 나타났다. 반면,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재비행 위험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가 3.5%, 약간 높은 경우가 31.4%, 낮은 경우가 65.1%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chi^2 = 28.73$, $df = 2$, $p = .000$).

논 의

결과 요약 및 정리

본 연구에서는 총 201건의 소년범들의 비행촉발요인 조사서, 사건 및 면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의 가정, 학교 및 개인적 특성들을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선 가족의 구조 및 기능에서는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가정불화나 냉담함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이나 가출과 관련된 경험에 있어서도 다양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중퇴하는 등 학력이 낮고, 학교에 장기적으로 결석하거나 무단결석을 일삼는 경우가 더 많으며, 학교에서의 경고나 정학 경험 또한 더 많고, 상급학교 진학 예정은 없으며,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비행 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경험에서도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드러났는데,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상습적인 가출 경험이 있었고, 가출하여 어울릴 친구들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출하여 집단으로 생활해 본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행 전력이나 환경에 있어서도,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이전 지구대나 경찰서 입건 전력,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경력, 보호관찰 위반경력, 대인피해 전력 모두에 있어 더 많으며, 장물처리 등의 비행 수법을 알거나 최초 비행연령이 만 10세 이하인 경우, 비행 전력의 점진적 심각성 또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개인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본드나 가스 등을 흡입해 본 경험이 훨씬 더 많았고, 준법 의식이 없으며,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적으로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촉발요인의 6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총점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비행 위험성의 수준도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높거나 약간 높은 경우가 79.3%를 차지한 반면,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34.9%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재범 위험 요인 및 방지 전략

학교 중퇴, 장기/무단 결석, 경고/정학 경험 등 학교생활에서의 실패는 정규 교육 과정을 밟는 대다수의 청소년들과 멀어져 방치되고, 다른 비행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높인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아동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비행행동에 더 크게 작용하며(박영신 · 김의철, 2010; Fergusson & Horwood,

1996), 소년범 가운데 상당수가 비행 친구의 영향을 받고 재범위험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이동원, 2003; 조윤오, 2012). 또한 신경민 등(2010)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비행 행동(가출이나 불량 청소년들과의 교류 등)이 청소년기의 비행 성향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보였다. 즉, 비행 친구는 비행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김의철 외, 2010). 따라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라도 학교에 복귀했을 때 다시 적응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상담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사회로의 재통합 노력이 요구된다(김지선, 2007). 더불어, 비행 친구의 존재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특히 취약한 또래동조성에 있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친구와 함께 무분별한 비행 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교우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김희화, 2009; 김의철 외, 2010).

본 연구 결과 가출 경험의 상습성과 함께 가출해서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존재가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출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범죄-절도, 폭행, 성매수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출을 예방하려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노력과 함께, 청소년 쉼터의 확충 및 가출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하다(이희정 · 이성철, 2005; 조윤오, 2012).

비행 전력이나 환경에 있어서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경찰서 입건 전력,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경

력, 보호관찰 위반경력, 대인피해 전력 모두에 있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의 소년범들이 불구속 처리되어 특별한 교정이나 선도 없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현실에 비추어(이수정·조은경, 2005), 재범이 반복되어 만성화되는 현 실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범죄 역지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장물처리 등의 비행 수법을 더 잘 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남희와 이봉건(2005)의 연구에서도 절도나 폭력, 공갈 등 다양한 비행청소년의 범죄 유형에 있어 재범자 집단이 비재범자 집단보다 비행관련 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경력이 더 많고, 교우 관계에 있어 비행 친구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은 점과 높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도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 기관에서 오히려 소년범들이 범죄 수법을 학습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의 준법 의식 및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전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사회에 대해 비행청소년이 갖는 태도가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이동원, 2003), 이전의 비행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미흡했던 소년범들의 의식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해 의식 개선이나 준법의식 함양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그간 비행청소년의 재범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등 교정 단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소년원 등 기관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받아왔다(이동원, 2003). 즉,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년범에 대한 심층 면담 내용과 함께, 소년범들의 피해자에 대한 의식이나 범행에 대한 책임의식, 법에 대한 태도 등 여러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못했던 비행청소년들의 의식이나 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소년원 등 교정 단계의 청소년들은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법원 등의 기관을 거쳐 비행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경찰서 입건 단계의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의 종류나 내용, 심각성 등이 편향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이수정·조은경, 2005). 따라서, 비행성의 분포가 훨씬 폭넓고 다양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장 최초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찰 단계에서 비행청소년의 가정, 학교, 비행 전력, 개인적 요인 등의 심층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향후 비행 청소년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이전의 연구들과는 구별되는 차별화된 개입 전략 수립에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비행청소년들의 표본 수가 적고, 지역적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표집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과가 있는 비행청소년과 없는 비행청소년들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 가운데에도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에 체포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한다. 한편 전과가 없는 비행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범 소년범들의 특성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의 연령이나 성별 등의 요인이 통제되지 않아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범과 초범 집단의 비교 분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통제 집단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행 전력이 없는 청소년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비행청소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조사하고 특히 재범자들에게 취약한 위험 요인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제원 · 이규호 · 이민희 (2010).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별 PAI 프로파일. 법학연구, 39, 157-176.
- 김의철 · 박영신 · 탁수연 (2010).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 비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4), 487-508.
- 김지선 (2007). 청소년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 1996-2005년. 형사정책, 19(2), 55-86.
- 김헌수 · 김현실 (2001).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지 분석. 신경정신의학회지, 40(2), 279-291.
- 김희화 (2001).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인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8(1), 143-162.
- 노일석 (2009). 청소년 절도사범 재범 예측 요인: 절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JP-RRAR)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449-470.
- 대검찰청 (2013). 2013 범죄 분석. 서울: 대검찰청.
- 박영신 · 김의철 (2010). 친구가 청소년의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갈등 및 부모의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3), 385-422.
- 서동혁 · 정선주 · 손창호 · 김원식 · 고승희 · 함봉진 · 조성진 · 김영기 · 이중재 (2001). 구속된 비행 청소년들의 석방 후 6개월 이내 재범의 예측요인. 신경정신의학, 40(3), 463-476.
- 신경민 · 신윤미 · 김선영 · 조선미 (2010). 청소년기 비행 행동의 초기 위험 요인: 6-8년 중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597-606.
- 양종국 · 김충기 (2002). 비행 청소년의 비행 위험 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 이남희 · 이봉건 (2009).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 위험성 차이에 관한 연구 -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와 PAI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3(2), 127-140.
-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5(2), 335-366.
- 이수정 (2007). 경찰단계에서의 범죄소년 다이버전을 위한 비행성 평가절차의 재범예측력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1(2), 47-57.
- 이수정 · 조은경 (2005).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측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9(1), 27-43.
- 이희정 · 이성칠 (2005).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초범군과 재범군의 비교. *아동학회지*, 26(5), 367-377.
- 정선주 · 김원식 · 고승희 · 구영진 · 김홍창 · 서동혁 (1999). 구속된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 및 석방 후 6개월간 재범여부와 관련된 변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0(2), 201-211.
- 조윤오 (2012). 소년원 퇴원 후의 재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79-98.
- 한기혜 · 박영신 (2005).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 *아동교육*, 13(1), 95-109.
- 황진규 (2011). 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요인 및 보호관찰 개입과 재범과의 관계성 연구: 비재범자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2), 115-133.
- Dembo, R., Turner, G. S., Sue, C., Schmeidler, J., Borden, P., & Manning, D. (1995). Predictors of recidivism to a juvenile assessment center.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30, 1425-1452.
- Fergusson, D. M., & Horwood, L. J. (1996). The role of adolescent peer affiliations in the continuity between childhood behavioral adjustment and juvenile offend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 205-221.
- Frick, P. J., Cornell, A. H., Bodin, S. D., Dane, H. E., Barry, C. T., & Loney, B. R.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developmental pathways to severe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46-260.
- Marquis, P. (1992). Family dysfunction as a risk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s*, 71, 468-470.
-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 차원고접수 : 2015. 03. 10.
 심사통과접수 : 2015. 06. 22.
 최종원고접수 : 2015. 07. 01.

Th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offenders who re-offend

Jisun Par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difference between juvenile offenders with and without previous criminal records, to identify risk factors which influence re-offending of juvenile offenders, and eventually to prevent juvenile offenders from committing crime. Based on the results from risk assessment tool for juvenile offender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 between juvenile offenders with and without previous criminal records. Case reports of a total of 201 juvenile offenders who had committed crime in the various areas of Seoul and Yongin were analyzed. As a result, considerabl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wo groups of juvenile offenders, in terms of family structure, family functioning, school life, elopement, criminal history, and personal factors. Finally,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Key words : juvenile offenders, criminal history, reoffense risk, family structure, school life